'잘 살아보세'와 '바로 살아보세'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KBS 일요스페셜에서 방송된 아름다운 '엘렌이야기'가 있었다.

엘렌은 한국에서 버려진 고아 출신으로 시각장애인처럼 거의 보이지 않는 여대생이었다. 그녀는 네살때 역시 시각장애인부부인 자상한 니콜스부부에게 입양되어 미국에서 자랐다. 니콜스부부는 엘렌 외에도 시각장애인과 정신박약아인 한국출신 고아 여러 남매를 사랑으로 드라마같이 키우고 있었다. 엘렌은 버려졌던 아픔을 극복하고 가족끼리 서로 도우며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했다. 그리고 여유를 잃지 않으면서도 '왜 버려졌으며 자기를 낳아준 부모는 누구인지' 스스로의 정체성을 파악코자 했다. 동시에 미래에 대한 바른 인생설계와 건강한 꿈을 꾸고 있어 진한 감동으로 가슴을 울렸다. 필자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존재와 소유'는 에리히 프롬이 던진 철학적 화두였다. 그는 사람을 존재형 인간(Being-Mode Human)과 소유형 인간(Having-Mode Human)으로 구분했다. 그의 메시지는 사람의 가치는 실존에 있지 얼마나 무엇을 많이 소유했느냐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일제의 노예생활, 6.25동족상잔의 폐허 속에서 한국인은 극빈을 면할 수 없었다. 모든 한국인은 가난이 웬수였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배불리 먹고, 입고, 따뜻하고 싶었다. 6.25 이후 급격히 가까워진 주한 미군이란 창문을 통해 본 쵸코렛, 과자와 빵을 먹고 싶었고, 털외투를 입고 싶었으며, TV와 냉장고 그리고 침대생활이 소원이었다.

바로 그때 5.16쿠데타로 군부정권이 등장했다. 정통성 부재를 캄플라지해야 했다. '군부, 관료, 재벌'의 국가주도 압축성장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철권정치와 황제오너들의 돈벌이가 극성을 떨었다.

모든 한국인들도 소유에 대한 욕망이란 불길에 기름 붓듯, 전쟁을 치르듯 '잘 살아보세'를 향해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질주했다. 그 덕에 한국인들은 TV, 냉장고, 세탁기, 싱크대, 아파트, 침대 그리고 드디어 마이카를 '소유'하게 됐다. 바캉스와 해외여행도 하게 됐다.

드디어 소위 '한강의 기적'을 온 세상에 알리는 88올림픽까지 개최하는 국가반열에 올랐다. 세계가 놀랐다. 그러나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성한 '한강의 기적'이었다. 속이 성할 리가 없다. 편법, 꼼수, 탈세, 빚더미경영, 정경합작과 유착, 흑막, 눈속임, 허세, 거짓, 부패, 거품 등이 잉태하고 발호했다. 정결과 근검과 성실과 책임은 촌스러운 언어로 전락했다. 결국 '잘 살아보세'는 '나만 무조건 잘 살아보세'로 타락하는 것이 당연한 귀결이었다.

모두가 모두에게 적이며 타도대상이 되었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잃게 되었다.

모두가 천민화 되었다.

그러다가 무리하게 부푼 풍선이 바늘에 터지듯 IMF를 맞았다. IMF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조정도 국가의 경제 효율을 높이는 과제인 듯 했으나 경제만의 문제가 결코 아니었다.

온 국민의 힘으로 이겨내긴 했지만 반복되는 문제일 것이다. 기업구조조정도 중요하지만 기업환경개선이 함께 해야한다. 그것은 사회문제이며 철학의 문제다. '잘 살아보세' 즉 '나만 무조건 잘 살아보세'에서 '바로 살아보세'라는 사고의 전환의 문제다.

새롭고 진정한 풍요와 번영의 삶.

엘렌처럼 서로 돕고 사랑하며 치유하고 아름답게 사는 삶. 그것이 곧 '바로 살아보세'가 아니겠는가.